

지역 소식통

김제시, '2025 A FARM SHOW' 우수 지자체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A FARM SHOW'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정책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25 A FARM SHOW' 박람회에서 김제시가 우수 지자체 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동아일보 주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aT센터 제1·2전시관을 활용해, 농업의 발전과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창업농업 분야를 소개하고,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맞춤형 컨설팅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에 중점을 뒀다.

시는 '농촌에서 희망을, 농업으로 미래'라는 주제로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1:1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김제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나섰다.

또한, 부스 한편에서 김제의 대표 특산물인 지평선 쌀과 가공식품, 결의회 회원들의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전시하며 방문객의 관심을 모았다. 이를 통해 김제시가 농업 중심 도시로서, 그리고 귀농·귀촌의 최적지로써 갖는 장점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문화원 '내 고장 바로알기'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문화원(원장 박현)이 3일 '복지·문화 소외 경로당 어르신'의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복지·소외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로당 중심 생활에 머무르던 어르신들에게 야외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역을 탐방하면서 공동체적 소속감을 높이고, 세대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 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 밖에 나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동네 친구들과 함께 새만금 등을 둘러보니 김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 같아 기대가 되고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되었으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어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평소엔 문화·여가 참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이달 중 매주 화요일에 4회에 걸쳐 16개 경로당 12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 국가예산 주요사업 김제시, 정부안 다수 반영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등 신규 포함 총 6308억원
과소·미반영 사업 대상으로 국회 대응 연말까지 이어가

새정부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이 3일 국회로 제출된 가운데 김제시(시장 정성주) 주요 사업도 신규사업 163억원, 계속사업 6,145억원 등 총 6,308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85억원),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15.7억원), △김제관아 외삼문 복원 정비(3억원),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4억원) 등이 반영돼 현안 해결과 지역 성장

을 위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지평선산업단지 완충 지류시설 설치(35억원),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47억원), △내수면 장외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59억원),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101억원) 등이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차후 새만금 마확정 사업 등이 더해질 경우 2026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더욱 확대되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예산 편성 초기부터 전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일제 출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건의 활동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함으로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그간 공들여온 주요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다수 반영되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되었다"면서, "이번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행정 통합, 행안부의 결단 남았다”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전주 통합, 군민 압도적 반대”
군의회, 임시회 열고 본격 의정활동 돌입… 결의안 등 채택

완주군의회가 3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익식 의장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군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완주를 괴롭혀온 행정통합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군민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전북일보-KBS 조사에서는 55%가 반대, 같은 해 8월 통합추진위 조사에서는 68%가 반대, 2025년 7월 케이저널 조사에서는 65%가 반대, 8월 완주신문 조사에서는 7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어느 조사에서도 통합 찬성이 반대를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3일 제2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유익식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없었다”고 강조하고, 그간의 완주에 성과를 짚으며 “인구가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섰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완주·과학·테크노밸리 제2산단 등 370만 평 규모의 산단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 정주 여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

다”고 성토했다.

유익식 의장은 “행정통합 논의 장기화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 간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완주군은 시장과 마을회관, 길거리에서 미래를 위해 하나가 되었다. 역사는 이 시간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권력자가 주민임을 증명한 시간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완주군의회는 더 늦게, 더 가까이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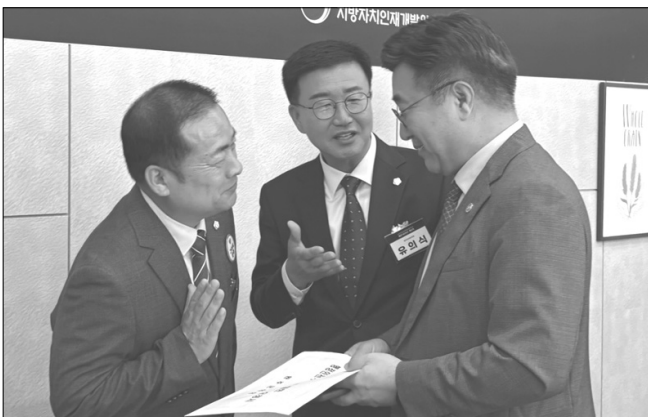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자에게 대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유이수 의원은 위봉산성 보수와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최광호 의원이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리고 및 추진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주민 갈등, 더 이상 지체 안돼”

완주군의회, 행안부장관에
행정 통합 반대 건의서 전달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과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은 3일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행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완주군, 기업 재직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완주군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5 전북시민대학 완주특화캠퍼스 시범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 재직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과 전북권 4개 대학(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LS엘트론, 한솔케미칼, 신평야 요양병원 등 완주군 소

재 3개 기업 재직자 총 32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품질분임조 및 통계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 AI 활용 교육, 간부 리더십, 건강한 스포츠마사지, 힐링 두피테라피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2,000만원(도비)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해 열린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사진=김제시청 제공)

함께 즐기는 ‘친환경 놀이터’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내일 개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보미 축제'는 5개 분야에 걸쳐 총 80개의 다채로운 자원순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먼저, 자원순환존(주제전시)에서는 김제시 사진을 활용한 이상기후 사진전, 주제관에서는 산업화 전후 복국의 모습을 재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새로보미존(체험·교육)에서는 자원순환의 필수 코스인 분리배출 시연과 페배터리, 멸균팩 등의 교환소를 운영하며, 재활용품을 활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노리존에서는 시원한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바운스, 캔크러시 등 자원순환을 놀이로 승화하는 노리스테이지를 운영한다.

무대존(공연·대회)에서는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대회, 도전 그린벨! 퀴즈대회, 리사이클링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행사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장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포토존, 스탬프 투어, 인생네컷 등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이번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에서는 고장 나가나 쓸모 없어진 물건들, 재활용품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인 '정크아트' 전시가 진행된다. 자원순환존 입구아치에는 높이 3m가 넘는 태권브이 정크아트도 전시되며, '정크아트 Live' 시연도 함께 진행되어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정크아트는 버려진 물건들이 새 생명을 얻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친숙한 소재로 만든 정크아트 작품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색다른 감동을 선사해 세대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배움의 축제, 자원순환의 가치를 놀이로 승화시킨 역동적인 축제, 환경축제의 모델이 되는 축제,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 청년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 출범… 정책 심의·자문 역할

완주군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완주군은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총 1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완주군이 내실 있는 청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당면적 공무원과 군의원, 청년 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유 군수는 "현재 봉동읍 동창햇살 참조센터 2층에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 중"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삼켜 '완충지대', 고산 '청춘방앗간',



이서 '이서나루' 등 청년거점공간을 통합 운영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완주군은 앞으로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개선 △청년 문화·복지 확대 △신규 청년사업 발굴 △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특이(악성)민원 대응 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일 시청 대강당에서 민원 빈발 부서 등 민원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김제시 특이(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관 신동택 강사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악성·반복민원로부터 공직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특이·악성민원의 유형과 사례, 공무원의 안전보호와 증

거 확보 요령, 민원 대응시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실제 상담 조정 경험 이 풍부한 강사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제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실무교육 위주로 구성됐다.

한편 시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부서 지정, 전화민원 접수녹음 적용,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운영 및 피해공무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